

양이라는 동물(2)

Argali, Urial, Mouflon 등 세 가지 원종의 양에서 시작된 면양은 인류의 발달과 함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이종 간의 혼혈이나 인위적인 개량에 의하여 오늘날의 수 백 종의 양종으로 발전하였다. 가장 잘 발달한 양은 털의 색상이 순백색이고, Kemp나 hairy한 털이 하나도 없이 온 몸 구석구석의 털의 굵기가 균일한 것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양은 양모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고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양의 젖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면 모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등 다양한 종류로 변화하였다.

양모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모방분야의 입장에서 볼 때, 양의 진화는 과거 200 여 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가령 영국의 장모종(長毛種) 양은 18세기말에 Robert Bakewell 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개량된 English Leicester로 새롭게 탄생되었다. 또한 스페인의 미개량 메리노 양이 수출 금지가 풀린 후, 여러 나라로 흩어져 나가면서 개량이 시작되었던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또한 남반구에 많은 새 나라가 들어서면서 축산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품질적으로나 수량 면에서도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말하자면 이때부터 정말 다양한 양이 탄생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3) 양과 환경

양의 종류가 수 백 종이 된다고 하는 것도 세계 각지의 전혀 다른 환경에 적당히 적응할 만한 양의 DNA가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각기 다른 환경하에서 다른 종류의 양이

사육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그 지역에 알맞는 경제적인 양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서부터 많은 양이 사육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나, 어떤 종류의 양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육되다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일본 강점기에 남면북양(南綿北羊)정책을 세워놓고, 오늘날의 북한에 목양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970년대 호주를 방문하였던 박정희 대통령에 의하여 한국에서도 목양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호주 정부가 예의 검토한 끝에 보내왔던 양종이 메리노가 아니라 코리데일(corridale) 종 5천 마리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목양 환경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던 호주 당국의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본다. 이것이 지금도 남원의 운봉 국립종축장에서 잘 번식되고 있으며, 1971년 아일랜드 출신의 맥그린치 신부에 의하여 시도되었던 제주도 이시돌 목장의 양도 역시 코리데일 종이였다. 그리고 현재 대관령의 양떼 목장이나 삼양목장의 양들도 모두 코리데일 종 양이다.

코리데일 양모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 메리노 양모만큼 섬세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의류용 소재로 요긴한 소재다. 동시에 모육(毛肉)겸용의 양으로 우리나라 풍토에 잘 맞는 것 같다.

가령 영국의 Scottish Blackface 양이나 Welsh Mountain 양과 같이 한 마리 당 수익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지방에서는 메리노나 코리데일 종 같은 양이 환경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비능률적인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메리노 종이라 하여도 호주 오지의 건조지대에서는 섬세한 양모(Fine wool)를 채취할 수 있는 메리노 양의 사육은 불가능하며, 한편 비가 많은 지방에서의 굵은 양모(Coarse wool)를 위한 메리노 양의 사육은 질병이 많아서 불가능하다. 같은 호주라 할지라도 타스마

니아 메리노에서 산출되는 윈튼(winton)양모는 특이하게도 그곳에서만 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같은 지방이라 하더라도 건전하게 사육할 수 있는 그 지방 환경에 맞는 어떤 양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양모의 품질, 고기의 품질, 양의 출산률 등을 잘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다.

(4) 양의 수명

양의 수명은 만 5년이 지나면, 점차 쇠퇴하여 간다. 이런 현상은 모든 동물이 그러하듯 동물이 늙으면 이가 빠져서 먹이를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굶어 죽는 것이다. 암양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수태 능력도 떨어지고, 수모량(收毛量)이 줄어들며, 양모의 품질도 저하한다. 또한 양모의 특징인 크림프(crimp)도 불명확해지고, 촉감도 거칠어져서 일단 도태시키는 것이 경제적이다.

1980년대 호주양모 공사(AWC)에서 양의 생존 연한을 늘려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방법으로서 양에게 의치를 끼워주면 몇 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양모의 품질은 어떻게 될 것이며, 고기의 품질은 어떻게 될까 하여 실험을 하였으나, 뜻을 모르는 양들의 반발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하였더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였을까 정말 궁금하여 진다.

때로는 훌륭한 혈통의 암양이 좋은 환경하에서 10년간 새끼를 출산하기도 한다는 기록도 있지만,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숫양의 경우는 암양 40-50마리를 담당할 좋은 씨 양을 제외하고는 어려서 모두 거세되고 생후 10개월 정도에서 도살된다. ♣ (공석봉)